

등의 힘

허정열

돌아서면 숨어버리는
등이 궁금하다
타인의 손 묵묵히 받아 주는 곳
언젠가 뒤로 넘어졌을 때 등판이 버티어 주었다
등지겠다고 나서는 당신을
맞받아치는 것도 등이었다
마음을 쓸어내릴 때
일어서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깊어지는 곳
등쳐먹고 달아난 놈의 흔적이 가슴에 머무를 때
바닥에 몸 누이고 짓무른 상처 받쳐주던 힘
나는 수시로 그 힘을 빌려 쓴다
등에게로 가는 길은 멀어서 불안한가
가까운 사람과 등을 지면 그는 내게서 아득해진다
등을 바람막이 삼아 달려온 생
등을 돌려 서로 마주 보면
따뜻한 말씀 한 자락 건너온다
내 몸 뒤편에 푸른 힘
사람과의 모서리를 지울 때마다
뺨뺨한 직선은 곡선이 되었다

허정열

등단 1999년 《지구문학》

작품집 『편지 선생님』 『안녕, 낯선 사람』

수상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, 동인문학상

